

보도해명자료

('14.02.1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'정부 원격진료 효과 부풀렸다' 관련 보도에 대한
입장 ('14.02.12. 한겨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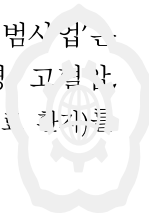
1. 기사내용

-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을 위해 임상시험 등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원격진료의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원격의료 서비스 치료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'스마트케어 시범사업'은 SK텔레콤 컨소시엄과 LG전자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당뇨병 고혈압, 대사증후군을 대상으로 대조군(대면진료 환자)과 시험군(원격의료 환자)을 나눠 진행함.
- 시범사업 결과, 당뇨·고혈압·대사성질환 등 세 질환의 주요지표(당화혈색소 변화량, 목표혈압도달율, 체질량지수)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은 바, 이는 원격의료의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.
- 또한 보도에서 "통계적으로 의미없다"고 한 22개 지표는 주요지표를 보완하는 것으로서,
 - 기사에서는 이를 마치 원격의료의 치료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대조군과 시험군간의 치료효과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의미임

※ 자료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김성수 팀장(044-203-4391)
천강 사무관(044-203-4395)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